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홍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명차 생산' 전통차

농업 전문가 육성 교육 추진

차나무 재배관리 · 제다방법 · 품질평가 등



녹차수도 보성군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전통차 농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교육을 한국자협동조합 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계단식 전통차 농업 시스

템을 지속 보전하고 고품질 명차 생산을 위한 보성 차생산자와 보성군의 노력이다.

전통차 농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한국자협동조합법인 대표 신기호 박사를 중심으로 차 전문 유통 회사 티젠(대표 김종태) 외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성군 차 재배 농기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차나무 재배관리 △제다방법 △품질평가 △맞춤형 포장 및 판매 유통방법 등을 교육 받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차 재배관리에서 품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돼 교육생들이 이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 재배 농기들이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맛과 안정적인 품질을 갖춘 보성 차를 생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차 생산 농기에서 고품질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고 인정받는 명품 보성차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만습지 겨울철 진객 '흑두루미 탐조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겨울철 '흑두루미 탐조프로그램'을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3월말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약 1만 6천여 개체가 살고 있다. 이 중 2100~2500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현재 월동하고 있다. 흑두루미는

순천만의 깨끗하고 넓은 갯벌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무농약 논습지를 오가며 5~6개월 동안 지낸다. 이번 탐조프로그램은 겨울철 진객 흑두루미를 비롯한 순천만의 다양한 겨울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회 진행되는 당일 탐조프로그

램은 주제 전문해설사와 함께 겨울철 출입제한구역인 회랑농업단지 내 탐조대에서 흑두루미의 면이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프로그램과 흑두루미 잡지리 새벽 탐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미세먼지 발빠른 대응

영광군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이행을 위해 올해 3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군민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발생억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지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8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등 구입액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에 15억 9천 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녹지공간 확충에도 힘써 미세먼

지 저감 조림, 녹색 삼지堇 조성, 대마신단 미세먼지 저감 조성 등에 총 5억 1천 4백만 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녹지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휴식공간 확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전파를 통한 대응요령과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넣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경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순천국

유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준 소장을 "올해도 산림사업장 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영립단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불조심기간임을 감안하여 산불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설 연휴 진료대책 상황실 가동

병원 58개소 · 약국 44개소 · 보건기관 10개소 분산 운영

광양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2.2~2.6.) 동안 응급환자 발생 대비와 시민 진료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한다.

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이 광양시본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설인 광양서울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또 병의원 58개소, 약국 44개소,

보센터(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APP)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현숙 의약팀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의원 안내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다"며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24시간 편의점 90개소에 비치된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며 안전한 명절 나기를 당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광양항 3억 톤 달성' 시민과 함께 축하해

개항 32년만 성과…광양항과 광양시의 동반성장 기대



광양시는 여수·광양항 총 물동량 3억 톤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최근 월드 마린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해운·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3억 톤 달성 흥보영상 상영과 포상수여식, 축사 및 축하 퍼포먼스 2025년 3억 7천만 톤 달성 비전 선포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3억 톤 달성은 광양항이 개항한 지

32년 만에 처음이고 국내 항만 중에서 여수·광양항 총 물동량 3억 톤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며, 세계 항만 중 11번째이다.

특히 총 물동량 3억 톤은 세계 10대 항만 진입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해운·항만의 힘든 여건에서 거둔 성과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2014년 233만 TEU로 정점을 찍은 후 험진해운여과 등으로 한동안 물동량이 감소되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7년보다 7.6% 이상 증가한 240만 TEU는 3억 톤 달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시는 이번 광양항 물동량 3억 톤 돌파를 계기로 광양항이 지역 발전

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 시설 설치, 특정해역 준설, 자동화 항만시설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남북경협의 통일시대를 대비해 대륙 간 물류거점형 육성 코자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광양항의 물동량 3억 톤 돌파는 광양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인 성과이다"며 "이번 성과를 기틀삼아 광양항이 세계 10대 항만으로 도약하고, 시 승격 30주년이 된 우리 시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발전해 국가와 전남 경제를 훤히하게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